



SUN '100% 야구'

KIA 성적 하위권 긴박한 상황에도 몸 상태 완전하지 않으면 기용 안해

선동열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름값으로 기용하지 않겠다. 열심히 한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선수단에 공표를 했었다.

개막 한 달여를 넘긴 15일 KIA 엔트리에는 박지훈·한승혁·홍성민·윤완주·이준호 등 신인급 선수 5명이 포진해 불펜의 필승조와 하위타선을 책임지고 있다. 이범호·김상현·한기주·양현종 등 주전급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것을 감안해도 다소 파격적인 구성이다.

하위권에 처져 있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선동열 감독은 "100%"를 언급하고 있다. 100%의 회복이 아니라면 굳이 부상 선수를 1군에 올릴 필요가 없고, 주전선수라도 100%의 상태가 아니라면 무리해서 기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00%를 주장하는 선 감독의 '독한 여유'의 이유는 미래를 위한 체질개선이란다.

'위기의 4월' 팬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범호와 양현종의 거취였다. 두

선수의 합류에 따라서 투·타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범호는 지난 주말 두산과의 2군 경기를 통해서 수비수 역할까지 소화했다. 대타 자원도 마땅치 않은 팀 전력을 감안하면 서둘러 이루어

이범호·김상현·한기주·양현종 등 주축

성급하게 기용했다가 역효과 날까 우려

최희섭에 하루 휴식 주니 만루홈런 보답

졌을 복귀지만 선 감독은 "본인이 100% 괜찮다고 할 때 부르겠다"고 여유를 보였다.

선 감독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기용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만큼 완벽한 회복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양현종도 2군에서 5차례 등판해 공을 던졌다. 좌완이 귀한 KIA에게

주요 자원이었지만 선 감독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양현종은 15일에는 1군 동행에 나섰다.

선 감독은 "2군에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면 1군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괜히 서둘렀다가 마운드에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부상 재발과 자신감 상실을 우려한 선 감독의 '독한 여유' 뒤에는 절실함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다.

선 감독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준비가 부족할 경우 누구든 2군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절실함으로 플레이를 하고, 내가 아니면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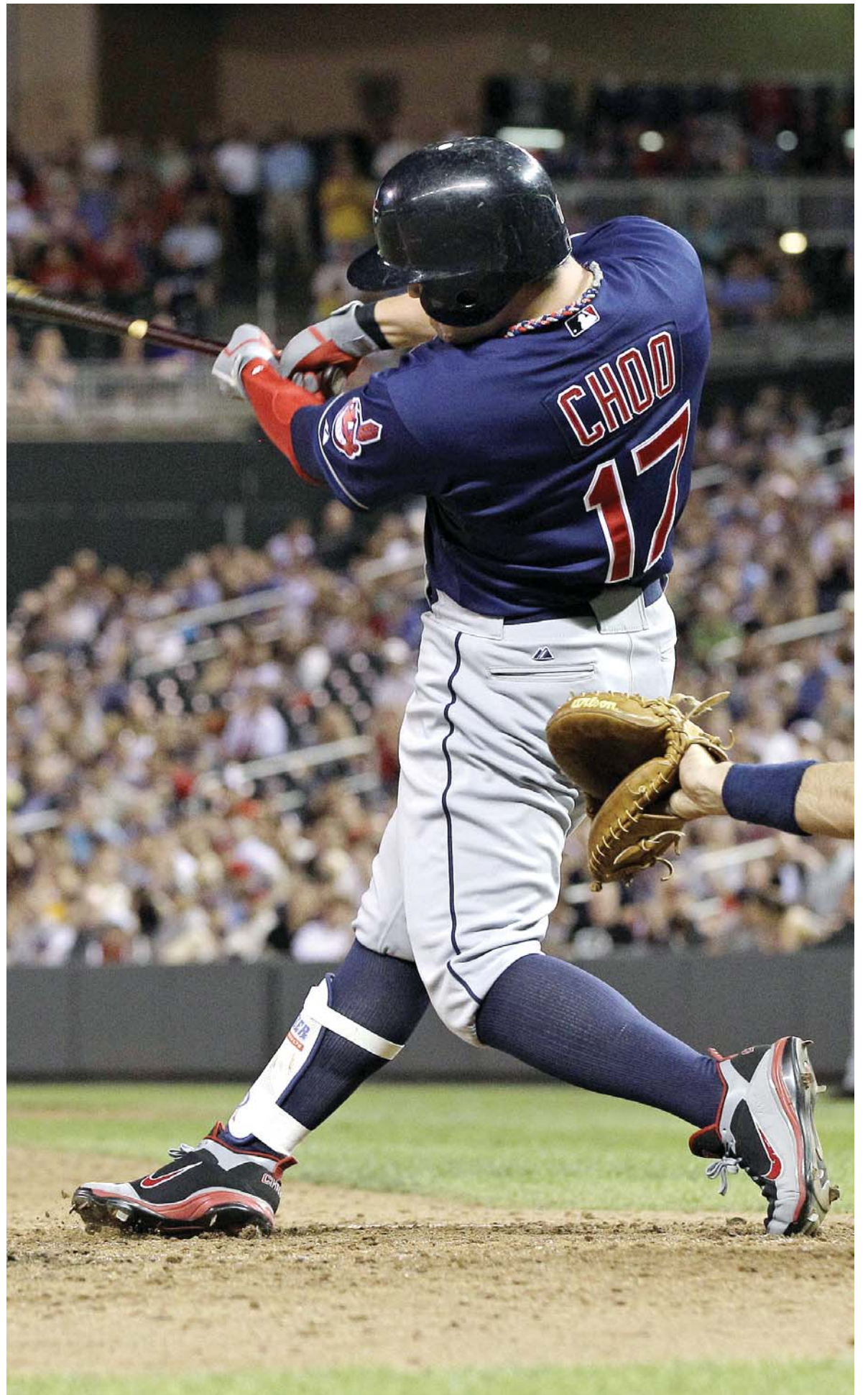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미래를 보겠다"고 말했다.

최희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잠적 소동의 책임을 물어 시즌 초반 자중의 시간을 보내게 했던 선 감독은 지난 11일에는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자 스타팅 멤버에서 제외시켰다. '겨울 훈련이 부족했던 게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는 조연도 잊지 않았다.

최희섭이 빠진 이날 KIA는 윤석민의 호투로 1-0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하루 휴식을 취했던 최희섭은 12일 경기에서 만루포를 쏘아올렸다. KIA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실의까지 챙긴 셈이다.

선 감독의 '독한 여유'는 일단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선 감독의 체질개선이 잡음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에 선수들의 활약과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순위싸움이 전개될 5월 성적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클리블랜드의 추신수가 15일 미네소타 타깃필드에서 진행된 미네소타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 5-4의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타를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어린이 무료 입장 이벤트

19일 제주와 광양 홈경기

전남 드래곤즈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가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남은 19일 오후 4시40분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제주 유니타드와의 홈경기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무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날 이순신대교 임시개통을 기념해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입장료 50% 할인 행사도 연다. 입장권 구매시 여수 거주를 증빙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50%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

전남은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광양-여수간 소요시간이 8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장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여수 축구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팬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팬 사인회도 마련됐다.

전남은 16일부터 광양 중앙동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게릴라 팬 사인회를 연다.

게릴라 팬사인회는 2인 로테이션으로 해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16일에는 이운재와 손철민이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팬들과 만남을 갖는다.

선착순 50명에게는 1.5kg짜리 쌀떡볶이음 떡과 떡국을 떡이 선물로 주어진다. 또 이번 팬 사인회를 위해 제작된 종이 클레퍼에 선수단 전원의 사인을 받을 경우 내년 시즌 연간권이 제공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청용 프리미어리그 남을 가능성

영국 일간지서 보도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볼턴의 이청용(23)의 프리미어리그 복귀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볼턴의 주장 케빈 데이비스를 비롯한 일부 선수들은 팀에 잔류하겠지만, 챔피언십(2부리그) 강등으로 팀에서 이탈할 선수가 적어도 7명, 많게는 11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청용은 이 신문이 지목한 7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크 데이비스, 스튜어트 홀튼과 함께 '볼턴의 주요 자산'으로 평가돼 뉴캐슬을 비롯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영입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데일리 메일'은 팀 내 최다 득점자 이반 클라스니치를 비롯해 폴 로빈슨, 로비 블레이크, 선 데이비스 등이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볼턴은 강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단주 에디 데이비스가 클럽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강등에 따른 스폰서십 및 TV 중계권 수입 감소 등으로 약 3천만 파운드(약 557억 원)의 손실이 예상돼 일부 선수들의 방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1번타자 추신수 짜릿한 결승타

미네소타 트윈스 경기

9회 안타로 5-4 승리

1번타자로 나선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짜릿한 결승타를 터뜨려 팀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미국프로야구 원정경기에서 4-4로 팽팽히

맞선 9회초 깨끗한 중전안타를 날려 5-4 승리를 견인했다.

이날 4타수 1안타로 2경기 연속 안타를 친 추신수는 시즌 타율이 0.236으로 조금 올라갔다.

1회 첫 타석에서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5회 몸맞는공으로 출루한 추신수는 8회 4번째 타석에서 헛스윙 아웃됐다.

하지만 추신수는 결정적인 순간 진

가를 발휘했다. 4-4로 맞선 9회초 2사 2루에서 추신수는 미네소타의 불펜 투수 맷 캡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2-3에서 6구제를 받아쳐 총알같은 중전 안타로 2루 주자를 불러들였다.

추신수의 결승타에 힘입어 5-4로 앞선 클리블랜드는 9회말 마무리 크리스 페레즈를 투입해 경기를 승리를 지켰다. 19승16패를 기록한 클리블랜드는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